

BOSEONG 

녹차수도보성 

# *Web Contents*



2025년 05월 16일 07시 08분

# 목차

목차	2
문화관광	3
7경 일림산/ 용추계곡	3
자연의 향기와 철쭉, 용추폭포가 이루는 장관 일림산/용추계곡	3
일림산 올라가는 길	3

## 자연의 향기와 철쭉, 용추폭포가 이루는 장관 일림산/용추계곡

일림산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과 회천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64m이고, 100만여평에 달하는 철쭉군락과 보성강의 시원인 용추계곡이 있다. 두 개의 큰 계곡이 있는 일림산은 산정상아래 습지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내리는 물이 바위 암반을 따라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굽이쳐 내려와 장관을 이룬다. 계곡사이로 식재된 삼나무가 뿜어내는 독특한 향이 일품이며, 매년 5월초가 되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철쭉군락 앞에서 일림산 철쭉제가 열린다.



철쭉산신제례



만개한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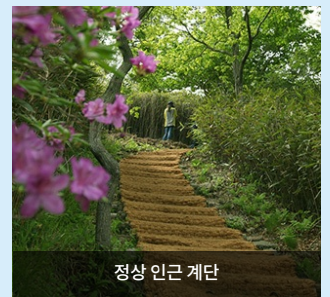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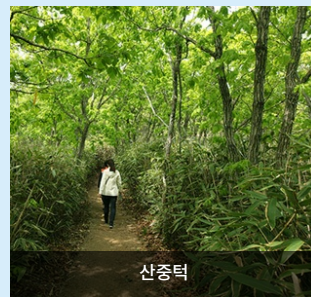
일림산 등산로

일림산은 호남정맥이 제암산(779m)과 사자산(666m)을 거쳐 남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솟은 산으로 산의 8부 능선에 형성된 무릎 높이 정도의 산죽밭과 정상 부근의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빼어난데, 북서쪽으로 사자산에서 제암산으로 범은 호남정맥을 비롯해 장흥군 천관산(723m)과 멀리 무등산(1,187)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남동쪽 산 아래로는 득량만에서 울포해수욕장을 거쳐 장흥군 안양면 해안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와 보성만 일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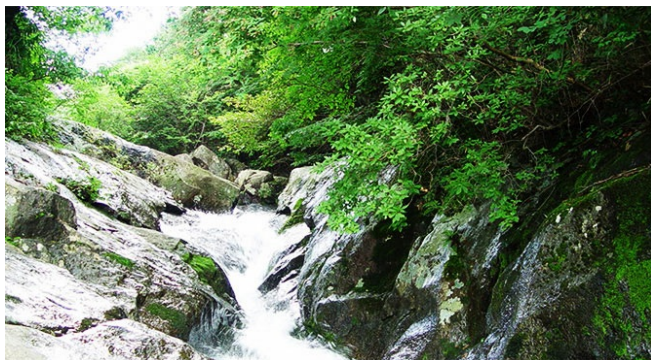
### 일림산 올라가는 길

(<http://www.boseong.go.kr>)

등산길은 단조로운 편이며 보통 회천면과 응치면의 경계가 되는 한치에서 시작하고 하산은 일림사를 거쳐 녹차 재배지, 혜성조류원, 금천 서초교를 지나 내려온다.  
 제암산과 봉수대를 연결하여 등산하는 경우도 많고 산행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  
 또한 일림산 일대에는 차밭이 많아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편제 소리로 유명한 산 아래 도강과 영천 마을에서는 판소리 명창이 많이 배출되었다



용추폭포는 옛날옹이 승천을 했다는 용소가 암반에 뚫려있어 명주실 한타래를 풀어도 끝이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으며,  
 용소 바로 옆에는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10여평 규모의 선녀탕이 있고, 그 옆에 비누통 자리가 있다.  
 또 용소 바로 위에는 용바위가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그 바위에서 돌을 용추폭포 물에 던지면 아이를 갖는다는 전설이 있다



---

COPYRIGHT © BOSEONG-GUN. ALL RIGHT  
RESERVED.

BOSEONG  
***Web Contents***



녹차수도보성